

5) 사람간의 통혼과 인맥

순천을 본관으로 하는 이곳 토성들의 통혼은 주로 중앙을 무대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순천 박씨 7세 박석명은 이조년(李兆年)의 손녀를 취(娶)하였고, 10세 박원중은 누이 둘을 대군에게 각각 출가시켰다. 순천 김씨 4세 김승주의 증손자 약평은 효종비 인선왕후의 아버지이자 계곡 장유의 고조인 장충보를 사위로 맞이하였다. 순천 장씨 16세 홍의 손자 사검은 성발(成潑)의 딸을 처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15세기 초에서 17세기 초까지 약 2세기간 이곳에 입향한 사족들은 대부분 지역혼을 하였다. 이것은 조선 전기까지 득세한 이곳의 토성들이 주로 중앙에 거주한 데 반해 입향 사족들은 중앙에서의 관직생활보다는 지방에서의 사림생활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다.

승평사은인 정소는 원명·상명 두 아들이 있었는데, 상명이 역시 사은의 하나인 정사익의 누이와 혼인함으로써 사돈지간이 되었다. 앞서 이곳 사림에 영향을 미친 우산 안방준도 정사익의 누이와 혼인하였다. 정사익의 아들이면서 우산 안방준의 문인인 정빈은 첨지 조윤연(趙潤連)의 딸과 혼인하였다. 경주 정씨와 옥천 조씨 간의 통혼은 이 경우 외에도 정사익을 중심으로 여러 겹으로 중복되어 있다.

옥천 조씨 충헌공과 9세 선종(善種)은 정사익을 사위로 맞이하였는데, 선종에게 아들이 없어 정사익의 아들, 즉 그의 외손으로 제사를 잇는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하게 되었다. 후에 곡성으로 이거한 상호정찰방공과 11세 이(怡)는 정사익의 손자 정지추(鄭之推)를, 이의 동생 열(悅)은 정사익의 아들 정순(鄭恂)을 각각 사위로 맞아하였다. 열은 목천 장씨 10세 장윤의 아들인 홍적의 처외조부가 된다. 홍적은 옥천 조씨 12세 의길을 사위로 맞이하였는데, 홍적의 형 홍의는 의길의 고모부가 된다. 승평사은의 하나인 허엄은 의길의 증조부 9세 개신(介臣)의 사위이다. 목천 장씨 10세 장렬(張冽)은 옥천 조씨 6세 죽촌공(竹村公) 승문의 현손 10세 신(信)의 사위이다. 양천 허씨 입향조 허형의 손자인 18세 혼(渾)은 옥천 조씨 부(玉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로 보건대 승평사은 중 3인은 통혼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으며 통혼의 중심이 옥천 조씨와 경주 정씨, 특히 정사익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평사은 이후의 사족들 사이의 통혼이 개인보다는 성씨 단위에서 이루어지며, 후손들의 증가로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곳 사람들의 학문적 인맥은 자체의 뚜렷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학자의 부재로 주로 지역 밖으로 확산된다. 가깝게는 우산 안방준에서 멀게는 영천(榮川)의 김난상까지 이른다. 사림 형성의 초기는 유배나 교수관 부임 등으로 이곳에 온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맺어졌으나 이후는 과거 등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유명 학자의 문인이 되면서 학문적인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별로 학통이 정립되면서부터는 다시 그 영향권이 지방, 즉 호남으로 축소되었다.

사은 이후 이곳 사림에 영향을 준 학자들로는 사암 박순, 기암 정홍명, 석천 임억령, 미암 유희춘, 우산 안방준 등이 거명된다. 배숙이 수학한 회재 이언적은 그가 이곳에 입향하기 전의 일이다.